

# 광주FC, 태국에서 동계훈련 1부리그 준비

이정호 감독 "조직력 극대화 최선" 안영규 "단단해진 광주 기대하라" 정지훈 "부상 없이 열심히 하겠다"

1부리그로 복귀하는 광주FC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고 휴식을 취했던 광주 선수단은 지난 12월 19일 광주에 재소집됐다.

선수단은 광주축구센터를 중심으로 지난 31일까지 1차 동계훈련을 하며, 기초 체력과 근력을 다진 뒤 짧은 휴가를 보냈다.

그리고 3일 고요하던 광주축구전용구장에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이날 오후 비행기로 태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나게 되면서 선수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인천공항으로 바로 합류하는 이들을 제외한 선수들이 구단 버스를 통해 오전 10시 태국으로 향한 여정에 나섰다.

1차 동계훈련에서는 '날씨'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광주에 폭설이 내리면서 훈련에 어려움을 겪은 광주는 태국 치앙라이에서 본격적인 실전 훈련과 경쟁을 시작한다.

시즌 멤버인 산드로, 아론과 함께 아사니, 토마스, 티모까지 새로 외국인 선수가 가세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실전 감각 향상과 육성 가리기라는 목표를 두고

진행될 태국 캠프에서는 오전, 오후 두 차례 훈련이 진행된다.

선수들은 고강도 체력 훈련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바탕으로 포지션별 전술 훈련을 소화한다. 기존 선수와 영입 선수 간의 호흡을 끌어올리는 조직력 훈련도 빼놓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막혀있던 해외 동계훈련에 나서게 된 '우승 사령탑' 이정호 감독은 "타이트한 조직력 축구를 보여줬던 기존 선수들이 많이 잔류해있기 때문에 팀워크와 조직력 부분에서 자신감 있다. 영입 선수들과의 호흡을 맞춰 완성된 조직력을 극대화 시킬 차례다"라며 "최상의 조합과 전술을 찾고, K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선수단의 열정도 남진다.

지난해 고향 팀으로 복귀해 팀의 우승을 이끌고 MVP 트로피까지 들어 올린 '주장' 안영규는 "팀이 더 성장하기 위해선 지난 시즌의 영광은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 한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니 잔류 그 이상의 성적 또한 못할 것이 없다"며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진 광주를 기대해 달라"고 언급했다.

지난 시즌 3골 6도움을 올리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낸 박한빈은 "동계 훈련 잘 다녀와서 시즌 시작할 때쯤 광주FC가 이런 팀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계훈련 부상 없이 잘 다녀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해 광주를 통해 프로에 뛰어들어 팀의 '조기



광주FC 선수단이 3일 2차 동계훈련지인 태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우승'으로 최종전에서 데뷔전까지 소화한 골키퍼 노희동은 "동계훈련 때 안 다치고 잘 성장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프로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 '고졸 신인' 정지훈은 "부상 없이 열심히 하고 오겠다. 빨리 팀에 적응해

서, 형들과도 친해져서 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프로 첫 해외 동계훈련을 떠나는 소감을 밝혔다.

광주에서 K리그를 경험하게 된 티모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기분이 좋다. 새로 뭘 준비가 됐다"

며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광주는 이달 31일까지 태국에서 2차 동계훈련을 한 뒤 2월 3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에서 2023시즌을 위한 최종 점검 시간을 갖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브렌트퍼드, 84년 만의 승리 승리한 뒤 84년 만의 승리를 거뒀다.

브렌트퍼드 요안 위셔(왼쪽에서 두 번째)가 3일 영국 브렌트퍼드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EPL 19라운드 리버풀과 홈 경기에서 전반 팀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브렌트퍼드는 1938년 11월 리버풀에 2-1로

/연합뉴스

## 전남드래곤즈, 장신 골키퍼 최봉진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검증된 골키퍼' 최봉진으로 골대를 지킨다.

전남이 FA로 194cm의 장신 골키퍼 최봉진을 영입했다. 부경고-중앙대를 거쳐 2015년 경남FC에 입단한 최봉진은 이해 트레이드를 통해 광주FC로 이적해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그는 광주에서 3시즌을 보내면서 40경기에 나와 존재감을 보여줬다.

2018시즌부터 아산무궁화에서 복무를 한 그는 광주에 복귀해 2경기를 소화한 뒤 부천으로 임대 영입됐다. 그리고 수원FC와 김포FC 등을 거치며

서 프로 통산 94경기를 소화했다.

큰 키를 활용해 골문을 지키는 최봉진은 뛰어난 위치선정·세이빙 능력으로 '거미손'이라는 애칭도 가지고 있다. 또 K리그 9년 차의 베테랑 골키퍼답게 선·후배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그라운드를 조율하는 능력도 돋보인다.

최봉진은 메디컬 테스트 완료 후 곧바로 팀 훈련에 합류해 새 팀 적응과 경쟁에 나섰다.

최봉진은 "역사가 깊은 전남에 입단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경기장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2023시즌 전남



최봉진

이 최소실점을 할 수 있도록 골문을 지키겠다"고 입단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여자 테니스 선수 '철녀' 나브라틸로바 암 투병

역대 최고의 여자 테니스 선수 중 하나로 꼽히는 '철녀'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67·미국)가 암 투병 중이다.

AP 통신은 나브라틸로바가 인후암과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고 3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인후암과 유방암 모두 초기 단계에 발견됐으며, 나브라틸로바는 이달 말 뉴욕에서 치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나브라틸로바는 대리인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이중고'는 심각하지만 고칠 수 있고, 좋은 결과

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약취가 좀 나겠지만, 최선을 다해 싸워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와 트위터가 먹통이 될 정도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으니 다시 말하겠다. 응원해줘서 고맙고,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나브라틸로바는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파이널스 대회에서 자신의 목에 림프샘이 커진 것을 발견했고, 병원 검사에서 인후암 진단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후암과 관련 없는 유방암도 발견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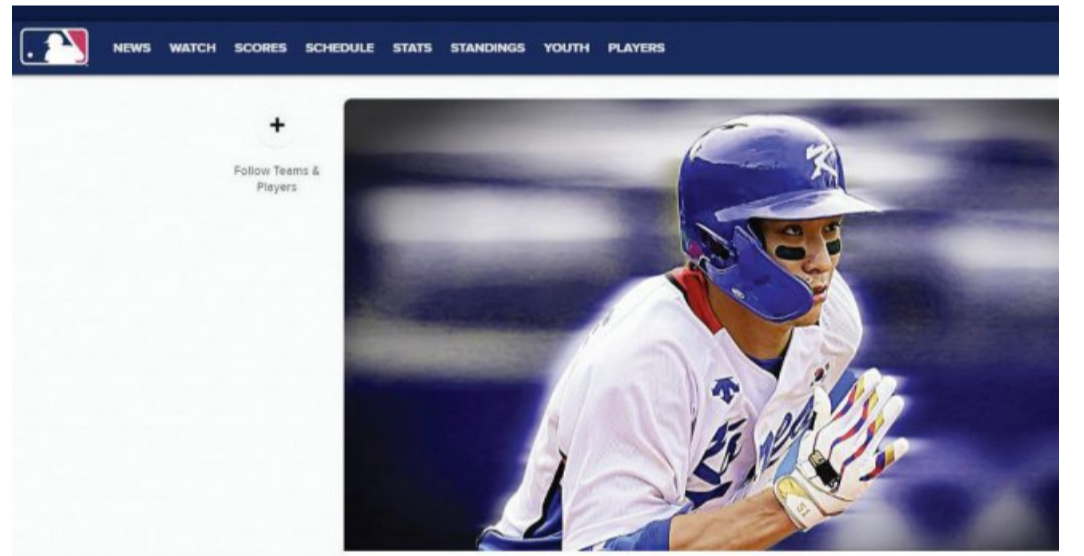
나브라틸로바는 지난 2010년에도 유방암 진단을 받고서 이를 수개월 만에 이겨낸 경험이 있다.

그해 2월 유방암 진단과 함께 절제술을 받은 나브라틸로바는 12월 길리만자로산 등정에 나서 팬들을 놀라게 했다.

나브라틸로바는 메이저 대회에서 여자 단식 18회, 여자 복식 31회, 혼합 복식 10회 등 총 59회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한 명실상부 '테니스 레전드'다. 1994년에 은퇴했으나 2000년 코트로 복귀해 복식 경기 위주로 출전하다가 2006년 완전히 은퇴했다. 2000년에는 테니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연합뉴스

## ML 도전하는 키움 이정후 456억 류현진 계약 넘을까



KBO sensation may be wind beneath one team's wing

There's a lot to like about Korean speedster Jung-hoo Lee -- not the least of which is his

MLB 홈페이지 첫 화면을 장식한 이정후.

올 시즌 마치면 MLB로 직행 가능한 한국인 새내기 최대기록 날까 관심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올 시즌 후 간판타자 이정후(25)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도전을 승낙함에 따라 이정후가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한국인 메이저리거 새내기 최대 계약 규모 기록을 갈아치울지 시선이 집중된다.

지난 2017년 KBO리그에 데뷔한 이정후는 올 시즌을 마치면 해외 진출에 필요한 7시즌을 모두 채워 구단의 승인을 받고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MLB에 진출할 수 있다.

해마다 비약적으로 성장해 온 이정후가 과연 KBO리그에서 MLB로 직행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첫 사례인 류현진의 포스팅 계약 규모를 넘어설지가 새해 벽두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류현진은 2013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계약하며 이적료로 2573만7737달러(약 326억원)를 받고 6년간 3600만달러(456억원)에 계약했다. 포스팅 비용인 이적료는 다저스가 류현진의 전 소속팀인 한화 이글스에 준 돈이다. 류현진이 받은 돈은 3600만달러다.

이정후가 올해 말 MLB 포스팅 선수로 공시되면, MLB 30개 구단은 30일 동안 이정후와 영입 협상을 벌인다. 과거에는 한 구단이 선수와 독점 협상을 벌였지만, 2018년 포스팅시스템 개정으로 30개 전 구단이 협상에 뛰어들 수 있다.

포스팅 비용(이적료)은 MLB 구단과 이정후와의 보장 계약 규모에 따라 세 부류로 나뉜다. 계약 규모가 2500만달러 이하면, 이적료는 계

약 금액의 20%다. 2500만~5000만달러 구간이면, 이적료는 2500만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17.5%와 이 구간 기준점인 2500만달러의 20%인 500만달러를 합친 액수가 된다.

계약 규모 5000만달러를 넘으면 이적료는 5000만달러 초과액의 15%와 5000만달러를 다시 두 구간으로 나눈 첫 2500만달러의 20%인 500만달러, 나머지 2500만달러의 17.5%인 437만5000달러 등 세 가지를 다 더한 액수다.

따라서 이정후의 계약 규모가 클수록 키움이 받을 이적료도 불어난다.

개정 포스팅시스템으로 샌디에이고와 4년 2800만달러 보장 계약한 김하성은 전 소속팀 키움에 이적료로 552만5000달러(현재 환율 70억원·당시 환율 60억1000만원)를 선사했다.

MLB 스카우트들은 일본프로야구의 수준을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 트리플A와 메이저리그의 중간, 한국프로야구의 수준을 마이너리그 더블A와 트리플A의 중간 정도로 여긴다.

먼저 진출한 한국 선수가 MLB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 KBO리그 수준과 별개로 이정후의 가치는 상승할 수 있다.

현재 MLB에서 각 구단이 두 무서운 줄 모르고 거액을 마구 퍼붓는 풍조가 유행처럼 번진 것도 이정후의 거액 계약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MLB는 또 다른 '쩐의 전쟁' 시대에 접어들었다.

다만, 이정후가 독점 협상 시대에 이뤄진 류현진의 역대 코리안 빅리거 최대 이적료 기록은 깨기 어려워 보인다.

현행 포스팅 시스템 계약에서 이정후가 1억달러의 대박 계약을 하더라도 이적료는 1687만5000달러에 머물러 류현진의 이적료에는 못 미친다.

/연합뉴스